

광주 자영업자 1년전보다 6000명 줄었다

도소매·서비스업 종사자 1만6000명 감소...역대 최대 규모 전남 제조업 불황에 취업자 증가 추춤...고용시장 불안 지속

호남통계청 4월 고용동향

광주지역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를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크게 줄면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압박을 견디지 못해 출퇴업하는 등 고용 상황이 악화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6일 발표한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광주지역 실업자는 3만6000명으로, 1년 전(2만8000명)보다 8000명 늘었다. 월별로 보면 전달(실업자 3만9000명)을 제외하고 지난 2005년 3월(3만6000명) 이후 가장 많다.

실업률도 4.6%로 전년도 같은 기간(3.7%)보다 0.9%포인트 올랐다.

광주지역 실업자는 지난 2010년 4월(3만1000명) 이후로는 8년 간 2만 명 수준을 오르내리다가 올해 2월부터 3만명 규모로 올라섰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가 1년 전(17만1000명)에 비해 9.1%(1만6000명) 줄어들면서 15만6000명에 불과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광주지역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의 경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3년 1월 이래 가장 적었다.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가 가장 적었던 때는 지난 2013년 3월(15만8000명)이었다.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가 줄면서 자영업자도 14만800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5만5000명)에 견줘 3.9%(6000명) 줄었다. 자영업자 수치도 지난 2012년 8월(14만8000명) 이래 가장 적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 쇼크' 수준의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인건비 상승으로 수익 구조가 나빠진 자영업자들이 손해가 커지는 상황을 감당 못하고 폐업하면서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광주 취업자는 75만5000명으로 1년 전(74만 1000명)보다 1만4000명 늘었고 올 들어서는도 ▲74만2000명(2월) ▲74만6000명(3월)등으로 증가세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일자리 창출력은 나쁘지 않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전남의 경우도 4월 실업률은 3.2%로, 가파르게 치솟았던 2월(4.8%), 3월(4.5%)보다 낮아졌고 1년 전(3.5%)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 수도 3만200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3만5000명)보다 3000명, 전달(4만4000명)보다 1만2000명 줄었다.

전남지역 4월 취업자도 96만8000명으로 전년도 동기(95만6000명)보다 1만2000명 증가했고 고용률도 62.9%로 올 들어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취업자 수는 2686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부터 10만 명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취업자 증가 폭이 3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이후 처음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459.82 (+1.28)
- ↓ 금리 (국고채 3년) 2.29% (-0.03)
- ↓ 코스닥 850.29 (-12.65)
- ↑ 환율 (USD) 1077.60원 (+3.80)



광주은행 '고객과 평생 동행'

30년 이상 거래 '평생동행31+' 7명 선정 감사 오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16일 창립 50주년을 맞아 진행한 '평생동행31+'의 선정자를 발표했다.

'평생동행31+'는 30년 이상 장기거래 고객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수기공모로 진행했다. 광주은행과 거래하며 겪은 비즈니스, 가족, 나의 성장 이야기 등을 접수받아 두 차례 심사를 거쳐 평생 동행 고객을 선정했다.

광주은행은 평생동행 고객 선정자 7명을 본점에 초청해 사은품 증정식 및 감사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평생동행상 5명에게 각각 국민관광상품권 250만원,

사랑동행상 10명에게 백화점상품권 100만원, 나눔동행상 15명에게 백화점상품권 50만원을 전달했다. 그리고 어렵게 선정되지 못한 고객 113명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 '평생동행31+'는 광주은행을 믿고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거래해주신 고객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보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지속적으로 고객 중심 경영을 실현해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신뢰에 보답하고 고객과 동행하는 100년 은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웃 사랑 퍼드립니다"

이은항 광주국세청장 '사랑의 식당' 배식 봉사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은항)은 16일 오전 광주시 남구 서동에 위치한 광주직업소년원 내 '사랑의 식당'(교문 정환열)에서 이은항 청장을 비롯한 30여명의 직원들이 '사랑의 밥퍼' 행사를 가졌다.

'사랑의 밥퍼'는 광주지방국세청이 12년 전부터 '사랑의 식당'을 후원하면서 독거·영세노인들을 대상으로 펼쳐 온 무료 급식 봉사활동이다.

이날 광주지방국세청은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돼지고기, 떡 등 특별식을 마련해 500여 명의 독거노인 및 저소득 영세 노인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했다.

이은항 청장은 "앞으로도 소외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적극 후원하고 배려해 나가면서, 지역민들과 현장에서 함께 소통하는 세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한부모 가정, 지적장애인 보호시설, 영세·소상공인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후원과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천 및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이 광주직업소년원 내 '사랑의 식당'에서 독거노인과 영세 노인들을 위해 밥을 담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금호타이어 5분기 연속 적자... 적자폭은 감소

국내차 생산 감소 여파 판매 부진...중국 판매 회복세

금호타이어가 5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한 때 법정관리 직전까지 가는 경영 위기 상황의 실적이 반영된 것으로, 경영 정상화에 나선 만큼 추후 영업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171억 원으로 적자를 지속했다고 공시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올해 1분기 적자 폭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3%, 전 분기보다 83.9% 각각 감소했다.

적자 폭 축소는 판매·관리·유지비(판매비)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금호타이어는 설명했다.

1분기 매출액은 625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6% 감소했다.

국내 시장의 경우 내수 경기 부진으로 인한 수요 위축과 파업에 따른 조업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고 북미 시장에서는 기존 대형 거래처 납품이 늘고 신규 거래처를 개발한 효과가 있었지만 국내 완성차업체의 생산 감소 여파로 신차용 타이어(OE) 판매가 부진했다는 게 회사측 분석이다.

중국 시장은 주요 완성차업체의 공급

불량 증가로 신차용 타이어 판매가 회복세를 나타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생산성 향상과 제도 개선 등 경영정상화 작업을 벌여 손익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이날 프리미엄 컴포트 타이어(승차감·정숙성에 중점을 둔 타이어) '마제스티9 솔루션(SOLUS) TA91'을 공개, 판매에 나서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넓히고 있다.

마제스티9는 중전의 금호타이어 프리미엄 타이어 '마제스티 솔루션'의 후속 제품으로, 기존 제품보다 승차감과 정숙성을 강화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워라벨 패밀리 락 페스티벌'

광주상의 26일 시청 문화광장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26일 오후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2018 워라벨 패밀리 락(樂) 페스티벌'을 연다.

'워라벨 패밀리 락(樂) 페스티벌'은 가정의 달을 맞아 일·생활 균형 문화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한 문화 행사로, 상공회의소 일·생활 균형 광주지역추진단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과 진행한다.

운동회, 문화공연, 놀이체험 등으로 진행되며 행사장 주변 바리스타, 드론 날리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참가자는 오는 18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문의는 광주상공회의소(062-350-5883)로 하면 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

한전, 원격검침용 스마트 계량기 개발

영국 ARM사와 협약...실시간 요금제·쌍방향 전력거래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은 16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英 ARM社와 함께 '원격검침용 계량 칩(SoC) 및 디바이스 관리 솔루션' 공동 개발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섭 한전 신성장 기술본부장, 디페시 파텔(Dipesh I Patel) ARM社 IoT 서비스그룹 대표와 연구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원격검침용 계량 칩(SoC) 및 디바이스 관리 솔루션'은 기존의 원격검침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기능을 확장한 보안 및 계량 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규격의 스마트 계량기다. 계량기와 무선통신을 통해 계량정보 수집은 물론 실시간 요금제나 쌍방향 전력

거래 등 새로운 전력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한전은 2021년까지 스마트홈, 통합검침, 수요관리, 분산전원 설비제어, 블록체인을 이용한 전력거래 등을 실증하고 사업모델도 수립할 계획이다.

김동섭 한전 신성장기술본부장은 "원격검침용 계량 칩(SoC) 및 디바이스 관리 솔루션은 고객에게 원격검침과 함께 수요관리, 에너지 거래 등 더 많은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이다"며 "앞으로 한전은 전력망의 디지털 변환과 고객 서비스 개발을 통해 에너지산업 확대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roma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니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능성 속옷 의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옥각형 사용

해양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리카미노산,
원적외선 특수물질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